

도시노인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

한 경 혜* · 윤 성 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 생활과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Life World and Experiences of Spaces of Urban Elderly in Korea

Han, Gyoung Hae* · Yoon, Sung Eu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Increased consensus among gerontologists exist on the need to pay greater attention to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and spatial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of aged identity and everyday lives of old people. With urbanization, spaces are increasingly age-graded and as a consequence, urban elders are socially isolated from the communit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ocial interaction patterns in various places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e elderly, such as the Senior Center, Senior Welfare Center, and Hall for the Aged in Seoul.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everyday life experiences of space the elderly people residing in the city go through.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Results show that such spaces were important sites for social interaction for urban elderly who lacked social spaces after retirement and active parenting role. Also, it was shown that each place presents different contexts for social interactions and certain components of social class differences existed. Heterogeneity within the participants of each place was also observed. Quite strong stereotypes about certain places were also observed among the urban elders. Based on these results, importance of developing a 'community perspective' in the study of old age is discussed.

Key words: urban elderly, aging in place, community case study, life world, age-grade of space, social network

I. 문제제기

최근 한국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의 삶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개개인이 속한 사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성

되는 사회적 과정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사회적·환경적 맥락에 대한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서구의 노년학계에서는 노년기의 건강 및 가족생활, 삶의 질 등 나이들의 경험의 맥락으로써 지역사회 영향(neighborhood effect)에 주목하기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149).
접수일: 2009년 2월 10일 채택일: 2009년 3월 1일

Corresponding Author: Han, Gyoung Hae Tel: 82-2-880-8748 Fax: 82-2-871-2506
e-mail: ghhan1970@naver.com

시작하였다(Phillipson et al. 1999; Thomese & van Tilburg 2000). 지역은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개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의 내용과 범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가족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전담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는 약화되고 있는 가족의 기능을 일정 정도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단위로 그 중요성이 크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라는 단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개인 혹은 가족의 문제 해결이나 이들의 복지증진을 당면한 개인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capacity)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 일탈 방지, 적응,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지적인 맥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노인,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극히 최근 들어, 농촌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탐색한 연구들(한경혜·김주현 2005; 한경혜 등 2005)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놀랄 만큼 부족하여 왔다.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박성용 1999; 오진영 1994; 허준수 2002)은 대부분 '조사대상을 도시에서 표집한 연구'에 머물고, '노인으로서 도시에서 살아가기'의 구체적 모습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 비하여 도시에서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적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노인의 절대적·상대적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맥락과 노인들의 삶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성'이라고 부르는 일반적 특성들 - 익명성, 잦은 이동성, 일상의 빠른 템포, 공적/생산영역과 사적영역의 시공간적 분리 등 - 을 생각해 볼 때, 농촌에 비하여 도시가 노인친화적 환경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에 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살고 있지만 제도, 공간, 문화에 있어 연령집단간의 분리 및 등급화가 심하여, 노인이 다양한 연령층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도시공간 속에서,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이 중심으로 구성된 빠른 템포의 도시문화 속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어떠하며, 이들의 일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의 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세계, 즉 일상 및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도시 서울은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장 많은 상류층과 동시에 가장 많은 도시빈민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며, 같은 서울이라는 생활공간도 계층에 따라 영역화되어 있다(김왕배 2000). 따라서 같은 서울 내에서도 단위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노인들의 삶의 궤적과 생활세계, 삶의 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지역의 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여 단위지역 노인들의 여가공간과 일상생활에 주목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세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강북지역의 1개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지역에 따른 노인들의 계층 및 자원, 생활양식 등에 대한 지역비교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 일상생활 공간으로써의 도시와 노년기의 삶

연령의 증가와 함께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구성은 변화하게 된다. 서구의 노년학

계에서는 최근 들어 노화와 공간의 이러한 관련성에 주목하는 연구(Kendig 2003; Wahl & Weisman 2003)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 여러 측면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삶의 질, 나아가서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삶의 기반으로써의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노인들은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이해하는 것은, 도시라는 맥락에서 노년기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개인의 선택성이 높아지는 후기 현대적 삶의 특성에 대해, 기든스(1997)는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바 있다. 라이프스타일이란 물려받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에서의 ‘선택’을 내포하며, 의상, 식사, 행동양식, 타인과의 만남에서 선호되는 환경 따위의 습관들로 이루어진 관행이다.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결정으로, 한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이 탈전통적일수록 라이프스타일은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한경혜·윤성은 2007).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일정한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영역보다는 소비의 영역에서 더욱 적용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노년기에 대체로 공식적인 노동시장을 벗어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의 삶은 대부분 여가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심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년기는 규범적인 시간표와 제도화된 생활영역을 대체로 벗어나는 시기이다. 결국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는 노인들에게 더욱 첨예한 문제이며, 이를 공간선택의 개념으로 환원시켜보면 노인들의 생활세계의 공간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생활세계가 어떠한 공간으로 구성되는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공간이 제공되고 이용가능한지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이미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

Riley와 Riley(1994)는 도시산업사회에서 일생의 각본이 주로 연령에 따라 학습, 일과 가족과 관련된 활동, 은퇴 이후의 여가 등의 크게 3등분된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의 생애 궤적의 사회적 분절화는 생애과정상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공간적·제도적·문화적 분리를 가져온다(Hagestad & Uhlenberg 2005). 결과적으로 이처럼 도시의 연령분절적인 사회구조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선택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고령화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소위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요한 사회제도들의 구조지체로 인해 노인들이 생산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공간은 다른 사회적 국면과 마찬가지로 희소자원으로, 공간의 가치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히 배분되지 않음으로써 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공간적인 약자를 양산하게 된다(조명래 2002). 한국의 도시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공간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도구화되면서 사적공간이나 소비공간에 비해 공공공간이 많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과 소외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일정 공간주체에게 공간의 가치가 독점되고 향유되어왔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서 노년기는 대체로 생산의 영역을 벗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공간은 더욱 주변화되고 희소해지게 된다. 또한 부족하게나마 열린 공간이 있다할지라도 연령분절적이고 젊은이 중심의 문화 속에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차별(ageism)을 연구하는 노년학자들(Uhlenberg & Gierveld 2004)은, 도시에서 계급에 따른 배제와 포함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듯이, 연령에 따라서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며 특히 노인들에 대한 배제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도시에서 젊은이들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지만, 노인들은 주머니 속으로 수용된다고 표현되기도 한다(Laws 1993).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에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존재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의 공간은 사회가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생활공간 역시 노인집단 내의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 의해 상이할 수 있다. 젠더나 계급 등에 따른 공간의 분리나 공간 점유 및 이용에서의 차이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일상적 지식에서 공공연하게 표출된다. 특정 장소들은 특정한 사회적 범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탑골공원의 경우 돈 없고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리고 노인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 장소인 경로당 역시 주로 고령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장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일상적 지식으로, 장소에 대한 의미를 창출하고, 또한 이러한 장소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이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노인들이 어떠한 공간을 선택하는가는 누구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시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하위문화들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인세대는 급격한 도시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로, 특히 도시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삶의 어느 시기엔가 이주를 경험했으며, 또한 친족관계망의 약화와 함께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다. 도시노인들의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높다하더라도 농촌에 비해 자녀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의 경우 가족이 떠난 자리에서 마을공동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라면, 도시노인들의 경우 가족이 떠나있지 않은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가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의 주된 삶의 영역이 시간 및 공간구조상 분리되어 있고 한국

가족의 정서적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노인들에게도 가족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환경은 노인들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많은 시간을 노동현장에서 보내며 일터와 거주지를 자주 드나드는 젊은층에 비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은 주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동성이 약화된 노인들에게 지역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Phillipson(2004)은 공공공간의 약화, 취약한 인프라, 지역산업의 약화 등의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상생활의 제약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특히 건강 및 지원망(support network)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시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과 건강,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자원 등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동시에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도시에서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세계가 어떠한 공간과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노인들이 속한 도시공간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도시라는 맥락에서 노인들의 노화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노인들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양적연구는 가설검증, 변수간의 인과관계 탐색 및 연역적 이론형성에 효과적이지만, 사회현상과 과정을 통계수치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인 표현양식으로 변환시켜버림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맥락과 경험의 구체성이 증발되어 버리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으로서 도시라는 지역사회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계성은 다양한 관련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매우 복잡적인데, 사회현상과 과정을 몇 개의 변수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양적연구는 이러한 복잡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한경혜·김주현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적(holistic) 관점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양상과 이들의 생활공간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선정에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한 자치구를 단위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에 속해있는 사례장소와 사례노인을 함께 표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사는 생활공간으로 특히 계층에 따라 영역화되어 있는 대도시 서울 안에서, 자치구라는 단위지역은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영역이며 지역구민으로서 어느 정도 유사한 라이프스타일과 동일시 감각을 갖게 하는 단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의 1개 구 - 선진구 (이하에 등장하는 지명과 기관명, 인명은 모두 가명이다) - 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장소는 외국의 선행연구나 한국사회에서 '사회가 노인의 공간으로 마련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경로당, 노인휴양소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단계적인 성격의 시설인 노인휴양소를 제외하고, 선진구에 있는 여가복지시설을 유형별로 한 곳씩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사례장소는 선진구 내에 소재한 푸른노인복지관, 우리노인대학, 삼미아파트경로당이며, 지역주민의 종합 복지센터 성격을 갖는 여성문화복지관의 노인교실을 보조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노인의 선정기준은 선진구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각각의 사례장소에서 만난 노인들을 사례노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사례장소와 사례노인의 섭외는 조사지역 관공서의 노인복지담당직원의 소개와 연구진이 직접 물색하여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는 연구진이 사례장소에 직접 찾아가 참여관찰, 사례노인과의 일대일 면접, 집단면접을 병행하면서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6년 4월에 약 한달 간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사례장소의 특성과 노인들의 일상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 경로당 등은 모두 전형적인 노인들의 여가공간이지만, 각 공간의 성격이 상이하며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 역시 계층이나 연령 등에 따라 분화되는 것으로 언급되어왔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사례장소로 선정된 노인여가공간들의 물리적 특성, 프로그램, 조직의 역사 및 성격 등이 매우 상이하였고 각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상호작용 역시 사례장소마다 차이가 있었다.

1) 푸른노인복지관

푸른노인복지관은 선진구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1998년에 설립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A동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아늑한 식당과 미용실, 1층에는 로비, 상담실,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층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는 치료실, 장애인주간보호소,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구가 설치된 운동치료실, 3층에는 정보화실, 서예실, 휴게실, 4층에는 사무실, 5층에는 대강당 등 층층이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공간만큼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크게 운동, 노래, 서예, 컴퓨터, 외국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매우 세분화되어 50개가 넘는 강좌가 편성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컴퓨터 교실과 외국어교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컴퓨터 교실의 경우, 한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및 블로그 편집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초, 중, 고급반으로 세분되어 있다. 외국어 교실도 영어회화, 영어노래배우기,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프로그램이 있고, 각각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복지관의 이용은 선진구의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어지며 무료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개월에 2만원의 수강

료를 내야하는 컴퓨터 교실을 제외하고 월 1만원에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의 회원이면 2층 운동치료실에 있는 운동기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진료와 의약품 역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는 점심식사가 제공되는데 한 끼에 2000원이며, 미용실도 파마 3000원, 커트 1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푸른노인복지관의 회원은 3000여명이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300여명이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연령층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젊은 노인들”이며, 복지관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A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버스나 전철을 타고 오는 노인들이 꽤 많았다.

연구진이 방문했을 때 복지관의 분위기는 활기차 보였다. 복지관의 노인들은 그야말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 의자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시원한 표정으로 나오는 할머니, 러닝머신을 하는 할아버지들, 휴게실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쉬고 있는 노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3층 휴게실에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바둑, 독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각 영역에 있는 노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간혹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인 만큼 노인들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였고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나 공간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였다.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학원”과 같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나오거나, 무료한 일상 가운데 소일하기 위한 공간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노인들도 있었다. 손미향 할머니(72세)는 이러한 복지관 노인들의 특성을 “다양한 성질”이라고 표현하였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집안에서만 살아온 서정분 할머니(73세)에게 복지관을 다니는 것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서 할머니는

복지관에 다니는 것이 “친구가 방구만 껴도 깔깔 웃던 여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사귀 친구들과 종종 저녁을 사 먹고 영화구경을 가기도 한다. 서 할머니는 “언제 우리가 에어로빅을 해보겠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학생 시절 이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 반면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직에 있었던 김명숙 할머니(72세)는 퇴직 후에 복지관에 거의 매일 나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하였지만 사람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노인대학이나 경로당과 비교할 때, 푸른노인복지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은 서로 좋게 지내면서도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감정을 섞지는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이러한 성향은 복지관 안에서 노인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공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손미향 할머니(72세)는 복지관 노인들이 이처럼 “다양한 성질이기에 때문에 다 좋게 생각하면서 좋게 지낸다”고 하였다. 서정분 할머니와 복지관 동료 할머니들도 복지관 사람들과는 “다 인사하고 다 친하게 지낸다”며 “마음을 비우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웃고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서 할머니의 경우 일상생활의 중심이 복지관 활동과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만나서 웃고 일상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남남끼리 만나서 또 돌아서면 그만”인 얕은 관계라고 이야기하였다.

2) 우리노인대학

선진구에 있는 9개의 노인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우리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선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노인대학 이외에 선진구에 소재한 나머지 8개 노인대학은 모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다. 우리노인대학의 조직은 학장, 부학장으로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 강사섭외와 같은 실무는 노인회 지회 일을 총괄하는 직원들, 즉 사무국장과 부장, 과장이 맡고 있다. 부장과 과장

을 제외한 운영진들은 모두 노인들로, 학장과 부학장은 모두 우리노인대학 출신의 노인들이고 사무국장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대한노인회에 이력서를 내서 고용된 것이라고 한다.

1990년도에 설립된 우리노인대학은 초창기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모범노인대학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받을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교시설 산하의 노인대학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우리노인대학은 현재 상대적으로 쇠퇴일로에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립초기부터 다니던 노인들이고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76세 정도이고 400여명까지 갔던 학생수가 현재는 200여명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주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노인대학 자체의 물리적 변화도 침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노인대학은 원래 A동에 있는 구민회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2002년도에 노인회관 건물을 따로 지어서 본부를 이전하였다. 구민회관은 전철역에서 가깝고 길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B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구석진 골목 안에 위치해있어서 찾아오기가 번거롭고 내부의 공간도 협소한 편이어서, 실제로 본부 이전 후 학생수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재정이 빈약한 노인회에서 노인회관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종교시설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립 치매센터와 함께 건물을 같이 사용하면서 치매센터가 건물 관리를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노인대학이 사용하는 공간은 4층의 노인회 사무실과 5층의 작은 교실뿐이다.

재정과 공간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댄스스포츠, 합창부, 공연부 활동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 외에 일주일에 한번 씩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회관 건물에서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강만은 아직도 구민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

리노인대학은 전적으로 6개월에 2만5천원씩 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섭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노인회가 재정능력을 갖추게 되면 건물 전체를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노인 전용공간으로 만들어서 바둑교실, 정보화실, 운동기구, 이발소 등을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노인대학 측의 바람이라고 한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특강의 경우 오후 2시에 시작되지만 연구진이 구민회관에 도착한 오후 1시 경에도 이미 구민회관을 찾은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특강 시간이 되자 구민회관 강당에는 150여명의 노인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대부분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은 임원을 제외하고 5~6명 남짓하며 주로 뒷좌석에 띄엄띄엄 앉아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할머니들 각각의 무리는 서로 친한 사이인 듯 보였다. 노인들의 옷차림새는 대체로 단정히 잘 차려입은 편이었고 모두 회원임을 나타내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노인들은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듣는 편이었고 강사에 대한 호응으로 간간이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가끔씩 즐기거나 소곤소곤 무리지어 이야기를 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노인회관에서 하는 특별활동은 모두 5층에 있는 하나의 교실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오전에 교실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의자를 놓고 합창부 활동을 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합창부 시간을 참여관찰 하였는데, 30명 남짓한 학생들은 모두 할머니들이었고, 강사는 전직 고등학교 음악교사 출신의 남성이었다. 수업 내내 강사가 악보집에 있는 곡들을 무작위로 골라서 피아노를 치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따라 불렀고, 간혹 어려운 곡이 나오면 전지에 매직으로 그려 넣은 악보를 보면서 박자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강사가 할머니들이나 연구진들에게 종종 농담을 거는 등, 수업분위기가 단출하지만 화기애애하였다. 수업이 끝나자 강사는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할머니들을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회관을 나섰다. 연구진이 사무실에서 사무국장과 면접을

하고 있는 동안 수업을 마친 몇몇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무국장은 할머니들을 “누님”이라고 불렀고, 직원들과 학생들이 서로를 스스럼없이 대하는 것이,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 듯 보였다. 우리의 대화에 참여했던 노급자 할머니는 글씨를 잘 써서 “명필할머니”라고 불렸는데, 9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테이가 되면 초콜릿을 예쁘게 포장해서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돌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에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서 돌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관의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노인대학 학생들의 관계는 1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비교적 친밀해 보였다. 이러한 관계가 특히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장은 노인들이 가까운데 이사를 가더라도 “나이에 비해 마땅한 생활공간이 없고, 여기가 다녀 보니까 그래도 좋으며 다시 온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대학의 운영을 노인들 스스로 맡는 등 노인회 특유의 자치적 성격 때문인지, 우리노인대학 노인들의 성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의 성향이 강한 푸른노인복지관 노인들에 비해 소박하지만 보다 주도적으로 비취졌다.

3) 삼미경로당

선진구에는 현재 113개의 경로당이 있다. 건축법상으로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진구는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거주지역으로, 전체 주택의 82.2%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다. 삼미경로당은 선진구 B동 삼미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으로, 본 연구진이 우리노인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노인대학의 부학장이자 삼미경로당의 회장인 최금실 할머니를 만나 연결된 곳이다. 삼미아파트는 지은 지 26년 된 “옛날 아파트”로 건물 벽의 칠이 모두 갈라져 허름한 느낌을 주었다. 경로당은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중, 가운데에 있는 ‘나’동의 1층에 위치해 있었다. 경로당 구조는 널찍한 하나의 마루로 이루어져 있고 앞뒤 출입문이 외부

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문 쪽에 두 사람 정도가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다. 연구진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경로당은 불을 켜지 않아 어둡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삼미경로당이 생긴 지는 20여년이 되었다. 삼미경로당 회원의 연령은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회원 고령화 및 감소 문제를 우리노인대학보다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 초창기에는 경로당이 매우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회원들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면서 많이 침체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계모임이 있는 날에는 이사를 간 할머니들까지 모여서 15명 정도가 되지만 평소에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은 보통 서너 명이고 많으면 대여섯 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노인대학에서 최금실 할머니를 통해 경로당 방문일정을 잡을 때, 최 할머니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옛날에 오라고 하였다. 연구진이 계모임이 있던 날 오후에 경로당에 도착해보니, 10명 남짓한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었다. 화투판은 두 패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 패는 삼미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간 할머니들의 패였고 다른 한 패는 현재 삼미아파트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의 패였다. 얼마 되지 않는 노인들의 무리 속에서도 상호작용의 패턴이 경로당의 초창기 회원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할머니들과 현재 삼미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의 그룹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 삼미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이사를 간 할머니들을 “저 양반들”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고, 이사를 간 할머니들도 자기들끼리 화투만 칠 뿐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삼미경로당 회원의 절반 정도가 이사를 간 상태인데, 이사를 간 할머니들은 보통 매달 15일에 있는 계모임과 1년에 한두 번 있는 소풍 정도에만 참석한다. 용인이나 상일동, 화양동과 같이 선진구에서 꽤 먼 곳으로 이사 간 할머니들도 있으며 회장 할머니조차 삼미아파트 근처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상태이다. 또한 삼미아파트로 이사 와서 경로당 회원이 된지 얼마 안 된 할머니들도 있다. 신림동에서 살다가 3년 전

에 삼미아파트로 이사 온 정길례 할머니는 낯선 동네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집안에 있자니 머느리 눈치가 보여서, 거의 매일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곤 하면서 경로당 살림을 도맡아 하는 터줏대감이 되었다. 그러면서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할머니들과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지만 께날에만 주로 얼굴을 보는 이사 간 할머니들과는 서먹한 편이라고 한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오랫동안 좌절되어온 낡은 아파트라는 삼미아파트의 특성은 주민들의 이사를 더욱 촉진시키면서 경로당의 회원감소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회원들의 이주가 잦다는 점은 동질적이고 안정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동체적 유대를 더욱 갖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비교적 먼 곳으로 이사를 간 할머니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께날”이 되면 꼬박꼬박 모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사를 간 할머니들은 새로 살게 된 동네의 경로당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삼미아파트에 살다가 용인 신도시로 이사를 간 이선자 할머니(91세)는 지금 사는 동네가 “아파트는 새로 지어놓았지만 벌어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를 않는” 곳 이다보니 동네 경로당에도 사람이 없어 심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선진구에서 가까운 딸네 집에 자주 머무르면서 손녀딸의 도움을 받아 삼미경로당에 나오곤 한다. 고령의 노인들일수록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이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이동성 제한은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기존의 사회관계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여성문화복지관

여성문화복지관은 마리아수녀회에서 선진구의 위탁을 받아 지역주민,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8년도에 세운 종합적인 복지기관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강좌는 합창반, 체조반, 무용반, 자서전 쓰기 반 등이 있으며, 노인회원은 100여명 정도로 여러 개의 강좌를 동시에 듣는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여성문화복지관이 위치한 선진구 C동은 큰 평수의 아파트 및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서울 시내에서도 경관이나 공기가 좋으며, 매우 조용한 느낌을 주는 동네이다. 또한 전철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복지관 앞에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다닐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노인회원은 대부분 인근 주택가에서 걸어오는 경우가 많고, 간혹 친구의 소개로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육팀장의 말에 따르면, 노인회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높은 편이어서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고졸이 별로 없을 정도이며, 은퇴 전에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도 많다고 한다. 개관 초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노인회원이 많기 때문에 연령층도 70대에서 80대까지 고령층이 꽤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곳 노인들의 성향은 까다로운 편이어서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강사가 바뀔 때 잡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욕구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 할 때가 많아서 “있는 것만 잘 살리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까다로운 성향 때문인지, 조사 일주일 전부터 기관담당자를 통해 조사를 홍보하고 협조를 부탁했지만 이곳의 노인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았다. 연구진이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수업이 마친 후였는데, 수업담당 강사가 노인들에게 협조를 구해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바빠서”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무리지어 교실을 빠져나가곤 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한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하는 할머니의 호의적인 태도로 이 할머니의 “멤버들”과 가까스로 면접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화장을 곱게 하고 있

었고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으며, 연령대가 주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지만 대부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이들 그룹은 주로 C동 성당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복지관과 성당을 함께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들도 있고 복지관에서 이들을 만나 성당까지 다니게 된 사람도 있었다. 이곳의 노인들은 복지관 초창기 때부터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모듬별로”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연구진이 만난 무리의 리더인 왕명자 할머니는 호탕한 성격의 여장부 같은 이미지였으며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모님”으로 불렸다.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본 연구진이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소개하자, 할머니들은 한 할머니를 가리키며 같은 서울대학 출신이라며 연구진을 “후배들”이라고 불렀다. 또한 할머니들은 화장실을 들리느라 무리에 조금 늦게 합류한 할머니를 보며 “여기 교수님 사모님도 오시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로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위를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례기관의 노인들보다 더 동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일과는 보통 늦은 오전에 복지관에 나와서 수업을 듣고, 같은 수업을 듣는 친한 몇몇 사람들과 “멤버”를 짜서 7~8,000원 정도 하는 점심을 사먹고 환담을 나누다가 2~3시쯤에 귀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만나 “시국이야기”도 해가면서 “밥 먹고” 어울려 노는 “그 재미로” 복지관에 나온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에는 각자 병원에 가거나, 종교활동, 동창모임, 가족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고 하였다. 왕명자 할머니(78세)는 복지관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멤버를 짜서” 여행 다니는 것을 즐긴다고 하였다. 요즘도 왕 할머니는 2박3일로 콘도를 잡아서 놀러가기 위해 멤버를 짜는 중이라고 하였다. 교육팀장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상류층이 많은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반응을 얻는 편인데, 여성문화복지관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이미 욕구가 충족되시는지 잘 안 된다”고 한다. 교

육팀장은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여성문화복지관의 노인들이 타 기관의 노인들보다 자신의 구미에 맞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동시에 욕구가 더욱 개별화되어있으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문화복지관 노인들의 생활패턴은, 하루 2,000원 씩 하는 구내식당의 밥값이 아까워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최근 “복지관에서 단체로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푸른노인복지관의 할머니들과도 대조적으로 느껴진다. 여성문화복지관 노인들이 다른 기관의 노인들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유사한 생활패턴을 보이는 것은 주변지역이 선진구 내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자동네”라는 지역특성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회원들 중에는 “자기랑 살았던 게 많이 틀리면 수업을 안 듣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존의 회원들은 주로 설립 초부터 다녀온 “토박이” 이거나 친구의 소개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이 여성문화복지관 노인들을 동질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선진구 노인들의 생활세계의 특성

1) 노인들의 높은 문화적 요구수준과 제도 사이의 간극

본 연구진이 사례장소에서 만난 노인들 중에는 80년대 초반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사를 온 경우가 많았다. 보통 선진구의 토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지방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살다가 배우자 사별 등을 계기로 선진구에 사는 자녀와 합치게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강남이 개발 될 때 아는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귀뜸”을 해주거나 자식들 교육을 위해 이사를 왔다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거주지 역시 발전하는 과정의 종착지로서 선진구에 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위와 맞물려서, 연구진이 만난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80세 전후의 고령층에서도 남편의 학력

이 대졸 이상이고 전직이 검사, 세무사, 사장, 교장 등 전문직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본인의 세대는 어렵게 살았어도 자식들이 “성공”해서 힘들었던 시절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노인들도 있었다. 노인들을 면접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연구진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면 노인들 중 열의 여덟 정도는 자신들의 자식이나 손자도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사례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몇몇 노인들은 자신들 스스로와 선진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준이 높다”는 말로 자신들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푸른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 중에, 전직 복지관장 출신이라는 한 할아버지는 다른 지역 노인복지관의 경우 외국어 “클래스”가 잘 운영되지 않지만 선진구는 노인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삼미아파트에서 20여년간 “제일 큰 평수”에서 살다가 장남 가족과 함께 용인으로 이사를 간 이선자 할머니(91세)는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선진구를 옛날부터 “금싸라기 땅으로 소문난 부자동네”라고 하였다. 독실한 천주교신자인 이 할머니는 선진구 B동 성당이 매우 화려하고 신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용인에 있는 성당보다 B동 성당에 더 자주 나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하는 공무원이나 기관담당자들은 선진구 노인들이 “워낙 개성적”이고 “엘리트 계층”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른 지역 노인들과 “완전히 틀리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사례노인들과의 면접을 통해 노인들의 배움이나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연구진이 만난 노인들 중에는 유난히 컴퓨터를 배우려는 노인들이 많았다. 선진구 옆에 있는 진흥구 K동에 산다는 한 할머니(79세)는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갔다가 “연령대가 안 맞아서 받아주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노인들을 받아주는 컴퓨터 교실을 찾아서 선진구에 있는 푸른노인복지관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푸른노인복지관을 8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다니고 있다는 서정분(73세) 할머니는 이제 푸른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도 모자라서 다른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찾아서 동시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보통 구립 노인복지관은 관할구의 주민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 할머니를 비롯한 푸른노인복지관의 몇몇 노인들은 “선진구에 없는 프로그램들” -하모니카, 장구, 당구, 탁구 등- 을 배우기 위해 다른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입신청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린 끝에 “특혜”를 받아서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문화복지관의 노인교실은 강사나 강좌가 바뀔 때마다 “잡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강사가 새로 오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수준 있는 사람 왜 안 부르냐?”는 식의 항의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면 “아이템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바꿔라.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까다로운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여성문화복지관의 교육팀장은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을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개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기관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례노인들과의 면접을 통해 자주 들은 이야기는 “세금 낸 게 얼마인데”라는 식의 복지혜택을 당연시하는 권리의식의 표현이었다. 노인복지담당 공무원과 기관담당자들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선진구 노인들 특유의 까다롭고 높은 욕구들을 따라가는 것의 버거움을 토로하였다.

제가 여기 있어보니까 ‘있을수록 힘들다.’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일은 계속 늘어나요. 계속 일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저회들이 따라갈 능력은 안 되죠. 뭔가가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높아진대거나, 엄청난 창의력 가지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건 안 되고...

-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이러한 노인들의 높은 요구와 제도 및 문화사이의 간극은 노인들에게 욕구불만으로 경험된다. “명필할머니” 불리는 우리노인대학의 노금자 할머니(90세)는 이화학당 출신으로 왜정 때 경리로 일을 했다고 한다. 그 나이 또래의 여성에게 흔하지 않은 사회경험 때문인지, 노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뭔가 보람 있는 활동을 하길 원했다.

88올림픽과 대전엑스포 때 일어통역 자원봉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 두 장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연구진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노 할머니는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자신의 바람과 달리 자신을 “아무도 써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글씨 잘 쓰면 뭘 해요. 날 누가 안 써주는걸, 늙어가지고... 제가 이 컴퓨터만 못하지 다른 건 다 하거든요.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써줘, 늙어서...

- 노금자 할머니(90세)

이러한 욕구불만은 남성노인들에게 더욱 심각하였다.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그러한 삶의 패턴에 연속성을 띄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한 바람은 구조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일견 모순적으로 선진구의 노인복지담당자는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접수가 안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는 보통 월 20만원 이하의 저임금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계에 보탬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봉사의 개념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 원하는 노인들, 특히 은퇴 전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담당자: 정부에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근데 신청을 안 하세요. 선진구의 특성이예요.

연구자: 일의 성격 자체가 고학력 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노인복지담당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취업하려면 정말 좋은 직장을 원하세요. 번역이라든가 그런 걸 원하시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 그런 자잘한 임금이 20만원 미만인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소득인 그런 걸 원하시죠. 청소가 아니더라도, 어르신 공부방사업이라든가, 장묘입지조사 같은 거는 눈에 띄지도 않는

데...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접수가 너무 적어서 홍보도 엄청 했었거든요. 너무 적어서 늘렸어요. 모든 경로당에 전화를 다 해도, “우린 그런 거 할 사람 없다”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세요.

- 선진구 노인복지담당자

연구진이 만난 노인들 중 노년기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찾아서 하고 있는 남성노인들은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일”들이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는 등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고 충을 털어놓았다. 6개월째 “지하철노인택배” 일을 하고 있는 김정배 할아버지(73세)는 일의 고된 정도를 생각하면 한 “200만원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자신의 보수는 “4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였다. 전직 교장출신의 한철호 할아버지(66세)는 퇴직 후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해보기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해보기도 하였지만 “밤낮 노인이라고 이용만 당하나” 싶고 “싼 돈으로 굶은 일 시켜먹는” 상황에 오히려 자존심만 상하게 되었다. 현재 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일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2) 계층에 따라 상이한 라이프스타일

“부자동네”로 알려진 선진구 안에서도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계층에 따라 상이하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의 여가공간은 계층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또한 상이하였다. 중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여성문화복지관과 푸른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생활이다. 이들 노인들의 스케줄은 대체로 요일별로 짜여 있다. 건물 전체가 노인전용공간으로 한 달에 1만원이면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푸른노인복지관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바쁘게 살아가기에 더 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푸른노인복지관의 손미향 할머니(72세)와 서정분 할머니(72)

는 이러한 복지관이 “학교”같아서 좋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바쁘게 살 수 없는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서정분 할머니는 노인대학은 “노래나 하고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곳이고 경로당은 “화투나 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푸른노인복지관의 한 할아버지는 노인대학을 “대학 못 간 사람들이 ‘대학’자를 붙여서 다니는 곳”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두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 간에 연령차이는 있어도 계층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공간 안에서도 노인들의 계층차이와 그에 따른 생활패턴 및 공간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념적으로 경로당은 “가난하고 할 일 없는 노인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가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진구에서 경로당은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공간인 것으로 보였다. 선진구청의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은 특히 아파트 경로당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엘리트” 노인들이 스스로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진이 만난 최금실 할머니와 왕명자 할머니가 그러한 경우였다. 이들은 모두 동네경로당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노인대학이나 여성문화복지관 등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경로당 회장직을 바쁜 일정 중에 간간이 챙겨야하는 명예직으로 생각하였으며, 경로당에 “맨날 나와 노는 할머니들”과 자신을 구분지었다.

왕명자: 매일 아침 10시 미사나 새벽미사 나가고, 화요일·목요일은 여기서 제조하고, 토요일은 합창반, 월요일은 강남**병원에서 18년째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그밖에 성당봉사 많이 해요. 레지오도 하고 활동 많이 하죠. 수요일은 성당 노인대학 나가고, 또 내가 노인정 회장이라 봉사해주고... 바빠, 우리는... 스케줄이 다 짜있어. 하루도 노는 적이 없어. 경로당은 내가 노인정 회장을 하니까 노인들 돌봐주는 거지.

연구자: 경로당에 매일 나가세요?

왕명자: (강한 어조로) 아니야, 난 바쁜 사람이라 일주일에 두서너 번... 할머니들은 맨날 있지, 자기네끼리 놀고 밥해 먹고...

- 왕명자 할머니(78세)

삼미경로당에서 주로 일상을 보내는 할머니들 역시, 회장이나 총무 등 감투를 쓰고 있는 노인들은 여행이나 다른 모임 등으로 “바쁜 양반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자주 나오지 않으며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노인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같은 경로당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자원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기반, 가족관계 등 노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삼미경로당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알려진 최금실(79세) 할머니는 우리노인대학의 부학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주일에 세 번 노인대학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다. 최 할머니의 장남은 명문대의 교수로 가끔 우리노인대학에서 특강을 해주기도 한다. 최 할머니가 다른 스케줄이 있는 날은 노인대학에서 중요한 행사를 잡지 않을 정도로 최 할머니는 노인대학에서도 중요한 존재이다.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최 할머니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레지오마리아 단원, 살레시오 회원, 프란치스코 회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4년 전에 삼미아파트에서 인근의 새로 지은 아파트인 선진뉴타운으로 이사를 갔지만, 반상회를 나가면 성당의 같은 교구 사람들이 20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고 한다.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삼미경로당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할머니는 주로 겹날과 같은 행사 때, 또는 시간이 빌 때 경로당에 나가서 “없는 할머니들”을 돌봐주곤 한다고 한다. 병원장을 하고 있는 의사며느리 덕분에 며느리 병원에서 하는 무료 건강강좌에 병원차로 경로당 할머니들을 매달 데리고 간다. 6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최 할머니는 며느리 병원사무실에서 일하는 딸에게 전화를 하면 딸이 차를 보내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 교수 아들,

의사며느리, 유학을 다녀온 손주와 의대를 다니는 손주들을 보며 사람들은 최 할머니에게 “다복한 분”이라며 부러워한다고 한다. 할머니 역시 스스로를 “행복 속에 산다”고 느낀다.

반면에 3년 전에 신림동에서 삼미아파트로 이사를 온 정길례 할머니(80세)는 처음에 “갈 데가 없어서” 경로당에 나온 이후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낸다. 최금실 할머니나 다른 활동적인 할머니들의 권유로 노인대학 같은 곳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할머니는 “글을 몰라서” 나가기가 싫다고 한다. 정 할머니는 대부분의 일상을 삼미경로당에서 보내지만 할머니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에 살던 신림동 이웃들이다. 정 할머니의 낙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당뇨치료를 받으러 신림동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옛날 이웃들 집에 들러서 며칠씩 자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용돈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는 교통수당이 할머니가 쓸 수 있는 돈의 전부이고, 최근에는 당뇨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서 그러한 외출도 쉽지가 않다. 정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얼어먹기만 하고”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요즘생활이 “눈치 봐지고 외롭다”고 한다.

선진구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빈곤한 노인들은 거의 없었지만, 선진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40여년 전에 포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최근 20년 동안 “강남”에서만 살았다는 김정배 할아버지(73세)는 “아들은 공무원해서 먹고 살고” 자신은 현재 “돈벌이를 못해서 택배하러 다니는”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했다. 김 할아버지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김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교되는 “강남 사람들”을 조금은 비하하고픈 속내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강남에 처음 들어온) 그 때나 지금이나 비교를

하면 그때보다는 (생활이) 100배 더 낫지만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좀 뒤떨어진 편이야. 많이 뒤떨어졌어. 내가 위를 쳐다봐서 그렇지. 위가 아니라 중간만 쳐다봐서 그렇지... “강남, 강남” 그러는데 강남엔 부자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 부자는 많이 있어요. 큰 부자 없어요. 강남 여기 굉장한 부자들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냥그냥 잘 사는 부자들... 큰 부자들 다 강북에 있지.

- 김정배 할아버지(73세)

앞서 소개한 정길례 할머니(80세)는 비금이라는 작은 섬마을에서 살다가 큰아들을 따라 서울에 올라온 이후, 아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 정 할머니는 전농동과 인천을 거쳐 선진구 C동에서 살다가, 사업을 하던 아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 부도를 내고 3년간 징역살이를 하면서 신림동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서 며느리, 손자들과 10년을 살았다. 그 후에 아들이 다시 직장을 잡아서 직장 근처인 선진구 B동 삼미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정 할머니는 단독주택이 많은 신림동 지역에 살 때는 가까운 이웃에 “친구만치” 놀러갈 때가 많고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한 줄 알고 사니까 좋았지만”, 지금 사는 삼미아파트에서는 “옆에 사람도 서로 모르고” 지낼 뿐만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라”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신림동에 비해 지금 사는 동네의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도 나쁘고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한다. 정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이웃사람들이 새물건도 함부로 버려놓은 것을 보면 “부자동네라 다르다”싶을 뿐, 자신은 부자동네에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정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자신이 “못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집 살이”를 했던 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꼭 연구진에게 컷속말로 이야기하였다.

3) 성별에 따른 공간경험

같은 여가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의미와 경험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게 상이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젊은 시절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어 온 가치규범과 이들이 유지해온 생활패턴 및 사회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푸른노인 복지관과 여성문화복지관, 우리노인대학 등에서 만난 많은 여성노인들은 각 공간에서의 활동을, 평생 가족원들을 뒷바라지 해온 삶에서 벗어나 여생을 즐기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급노동을 통한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남성노인들에게 복지관 같은 공간에서의 활동은 ‘시간을 때우는’ 경험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생활방식이 이들의 자존감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였다.

명문대 대학원까지 다니고 평생 “사장님”으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사업을 접은 이종환 할아버지(65세)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찾아서” 산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푸른노인복지관에 나와서 컴퓨터와 영어회화를 수강하고 있으며, 동창생들과 정기적으로 등산모임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관 “클래스메이트”의 소개로 “남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자신도 시간을 보람 있게 쓸 겸해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한 가지 일만 했던 은퇴 전에 삶이 “이것 기웃거리고 저것 기웃거리야 하는” 현재의 삶보다 더 편했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현재에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을 “까먹고 사는 인생”이라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할아버지는 또한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새로 시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상의, 사람들과 간밀하게 교류하는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이 할아버지가 가장 즐겨워하는 시간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동창들을 만나서 “밥먹는 시간”이다. 이러한 모습은 복지관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복지관에서 보이는 상호작용 양상과 대조적이다. 이것은 이 할아버지의 경우 복지관 이

외에도 젊은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축해 온 사회관계망이 이미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할아버지에게 은퇴 전까지의 지역사회는 “새벽에 떠나와서 밤늦게 되돌아가는” 베드타운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지금에 와서 이웃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매우 낮은 일인 것으로 보인다.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5년 전에 퇴직한 한철호 할아버지(66세)는 퇴직 후의 삶을 “방황”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시간이 여가가 되어 버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할아버지에게는 복지관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시절 즐겨했던 “바둑”을 두는 것조차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져 달갑지 않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특히 아직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터라 수입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평생을 생산현장에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아온 남성들에게 은퇴는 사회의 중심 영역에서 변두리로 갑작스럽게 내몰리는 사건으로, 이러한 경험은 남성들이 노년기의 일상을 조직하는데 여성들보다 더 많은 적응을 요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규범은 생산성 규범과 맞물려서 남성들의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가족의 자리를 대신하는 공간

선진구에서 만난 사례노인들은 각자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일상생활은 자신이 선택한 공간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들의 일상의 전경이 복지관이거나 경로당과 같은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채워지는 배경에는 ‘비어있는 가족의 자리’가 있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은 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지만 그들이 현재의 공간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는 이유를 물으면 공통적으로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나?”는 식의 반문을 하였다. 노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과 쓸쓸하고 지루한 시

간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에, 푸른노인복지관의 서정분 할머니(73세)는 복지관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복지관에 나가지 않는 주말이 가장 심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삼미경로당의 정길례 할머니(80세) 역시 경로당에서 노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외롭다고 하였다. 정 할머니는 특히 밤이 되면 자궁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오고 울적하다고 하였다.

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의 시간구조가 세대 간에 판이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은 “바쁜 자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간혹 며느리가 전업주부로 집에 있다하더라도, 특히 세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노인들이 집에 있는 것은 더욱 “눈치 보이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농촌 노인들과 달리 선진구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즉 선진구에 사는 도시노인들의 일상도 농촌노인들의 경우와 같이 가족이 떠나있지는 않았지만, 시간구조상으로는 정서적으로 가족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이 지별만한 공간을 찾아서 선택하고 시간표를 채우는 것은 한편으로 비어있는 가족의 자리를 매우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푸른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잘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그 잘 해주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들에게 복지관은 가족의 역할을 일면 대신해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자식들이 이사를 가면서 3년째 선진구 A동에서 혼자 남아 살고 있는 노현순(83세) 할머니는 다른 모임이 있는 날을 제외한 월, 수, 금요일마다 복지관에 “점심을 먹으러” 나오신다. 노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반찬도 잘해주고, 어버이날에 선물도 주고 생일잔치도 챙겨주는 등 “너무 잘해준다”고 하였다. 복지관을 8년째 매일같이 나오는 서정분 할머니(73세) 11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을 찾아 성당에 나갔다가 성당친구의 소개

로 복지관에 나오게 되었다. 서 할머니는 성당에 다니는 것도 “냉담해지고” 남편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복지관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서 할머니에게 복지관은 사회적인 교류의 장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복지관은 보호의 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공간이다. 복지관에 며칠만 빠져도 전화도우미가 안부를 묻고, 아파서 응급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곳”이다. 서 할머니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막내아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막내아들도 바빠서 거의 혼자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복지관에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서 할머니가 심하게 아파서 복지관에서 병원까지 구급차로 이송된 적도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서 할머니에게 복지관은 가족의 기능을 많은 부분 대신함으로써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밥 먹으면 갈 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여. 노인네가 집에서 뭘 하겠어? 복지관 오면 ‘자식이 왜 이러나, 왜 안 오나, 뭇이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 재밌게 놀고 운동하고 집에 가쁜 청소하고 그냥 밥해먹고 자고 그래. 자식들한테도 오해가 없어. 자식들도 너무 편할 거 아니야? 여기서 하루 종일 지낸다 생각하면 그냥 용돈만 주면... 집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 (복지관 오면) 대화할 수 있고, 또 집에 가면 옷을 일이 없잖아. 여그 오면 깔깔깔 웃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제. 아프면 다 치료해줘. 그리고 여기 오면 정보가 빨라. 무슨 예방주사 맞아야 한다 그러면 가서 다 맞고, 생일날도 그달 다 모여서 뽕빠레해가지고 생일파티해주고 선물하고 떡도 하고... (자식들은) 가끔 일주일에 한번씩 집에 오는 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젊은게 다 바빠. 대신 돈으로 우리를 (웃음)... 근데 이렇게 쓰고 땡기면 자식생각할 시간도 없어. 저희도 바쁘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어서 좋다고, 여기 와버린게. (자식한테) “언제 올라나?” 전화하면서 어쩐다 하면 자식입장도 곤란하지. 바쁘네 엄마가 기다리는 것 같고 하면 괴롭잖아. 그런게 전화도 안 해.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서정분 할머니(73세)

삼미경로당의 정길례 할머니는 손자들이 어렸을 때에는 일 나가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자들을 돌보느라 주로 집에서 지냈지만, 지금은 손자들이 대학 들어가고 군에 입대하면서 할 일이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경로당에 보낸다고 하였다. 요즘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정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경로당에 나와서 저녁에 귀가한다고 한다.

나는 갈 데 없으니까 날마다 오는 거여. 일요일은 더 일찌감치 와서 있지. 집에 인자 누가 있어야지. 애기들이 없으니, 군에 가고 대학 가고... 암만도 며느리하고 같이 지내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지. 일 없고 나이가 80이나 먹었은게 나와분거여. 나와있어야 나도 편하고 같이 있는 며느리도... 나는 보통 (오전) 8시에 많이 나와. 우리 식구는 아침밥을 안 먹어. 누가 있어야지. 아들 회사에 가고, 며느리는 잠자고 있으면 나는 나와분거여. 어떤 때는 여기서 점심 해먹을 때도 있고, 저녁에는 누가 있으면 6시에 도 가고 4시에도 가고...

- 정길례 할머니(80세)

V. 요약 및 결론

선진구에서 만난 노인들은 지역개발붐이나 자녀교육열에 의해,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함께 거주지 발전 역사의 종착지로서 선진구에 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와 맞물려서, 선진구에서 만난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편이었고,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거나 전문직 출신의 노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부자동네”이며 자신을 역시 “수준이 높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이 이러한 “부자동네”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큰 것으로 보였다.

연구진이 만난 노인기관 담당자나 노인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선진구 노인

들의 특성은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와 높은 권리의식’으로 요약되었는데, 이것은 선진구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구 노인들의 높은 요구수준과 제도적·문화적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이러한 간극은 노인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에게는 노인들의 높은 요구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버거움’으로 다가왔고, 일부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욕구불만으로 경험되었다. 특히 평생 일 중심의 삶을 살아온 남성노인들의 경우 은퇴이후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은퇴 전의 직업지위가 비교적 높았던 노인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욕구들은 현실적으로 쉽게 충족되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신문·뉴스 등을 통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진이 만난 노인복지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선진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가 “놀라울 정도로” 저조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 단순노동 중심의 일이라는 현실과 노인들이 기대하는 “일다운 일” 사이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집단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획일적인 노인복지제도에 많은 한계가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

같은 선진구 안에서도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의 성격과 운영상황, 프로그램 등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연령, 계층 등의 특성이 다양하였으며, 그와 함께 공간 안에서의 노인들의 상호작용, 노인들이 공간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상호작용은 사례기관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상당히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노인대학은 초창기에 회원 수도 많은 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주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여러 유형의 노인대학들이 들어서면

서, 회원 고령화 및 감소와 함께 재정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으며 쇠퇴 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구에서 운영하는 푸른노인복지관에 비해 우리 노인대학은 노인들에 의한 자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짧지 않은 역사를 바탕으로 회원들 간의 관계가 비교적 친밀하였고, 특히 고령노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삼미경로당은 우리노인대학보다도 고령화 및 회원감소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으며, 아파트의 재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이사를 가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도 침체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사례장소에서 만난 노인들뿐만 아니라 삼미경로당 노인들 스스로도 경로당을 ‘비생산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자신들에 대한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의 노인들일수록 다양한 공간을 선택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배려한 공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공간 내에서도 노인들의 특성이나 자원에 따라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노인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성노인들 중에는 복지관에서의 활동을 평생 가족원들을 뒷바라지 해온 삶에서 벗어나 여생을 즐기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유급노동을 통한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남성노인들의 경우 복지관에서의 활동을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선진구 지역에서 있는 노인들의 여가공간과 그러한 공간에서 만난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집단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생산성과 독립성 등의 자본주의적 가치의 압력을 느끼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모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 중심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온 남성노인들에게나,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건강하고 능력을 갖춘 노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령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종교기관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생산성이나 활동성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도서출판 한울. 231-237.
- 박성용(1999) 도시노인의 친구관계: 노인대학생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32(1), 81-110.
- 앤소니 기든스 저.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151-153.
- 오진영(1994) 도시노인의 경로당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조명래(2002) 공간의 정의와 생태문화운동: 용산기지 시민행태공원화 운동을 사례로. 문화과학 24, 297-322.
- 한경혜·김주현(2005)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1), 73-88.
- 한경혜·김주현·강혜원(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15(2), 85-131.
- 한경혜·윤성은(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299-322.
-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227-247.
- Hagestad GO, Uhlenberg P(2005) The social separation of old and young: A root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43-360.
- Kendig H(2003) Directions in environment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field. The Gerontologist 43(5), 611-615.

- Laws G(1993) "The Land of Old Age": Society's changing attitude toward urban built environments for elderly peopl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83(4), 672-693.
- Phillipson C(2004) Urbanisation and ageing: Towards a new environment gerontology. *Ageing & Society* 24, 963-972.
- Phillipson C, Bernard M, Phillips J, Ogg J(1999) Older people's experience of community life: Patterns of neighboring in three urban areas. *Sociological Review* 47(4), 715-43.
- Riley MW, Riley JW(1994) Age integration and liv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4, 110-115.
- Thomese F, van Tilburg T(2000) Neighbouring networks and environmental dependency. Differential effects of neighbourhood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ve size and composition of neighbouring networks of older adults in The Netherlands. *Ageing and Society* 20, 55-78.
- Uhlenberg P, Gierveld JD(2004) Age-segregation in later life: an examination of personal networks. *Ageing & Society* 24, 5-28.
- Wahl H-W, Weisman G(2003) Environmental gerontology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ium: Reflections on its historical, empirical and theoretical development. *The Gerontologist* 43(5), 616-627.